



이 학 영 | 이학박사 / 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 우리협회 하천환경위 부위원장
(rihs@hanmail.net)

학 명 : *Odontobutis interrupta*

지역 방언 : 꾸구리, 구구락지, 조탱수, 멍충이 등

분 류 : 농어목 동사리과

자생 수 역 : 한강, 임진강, 금강, 만경강 수계 중·하류

주 서식장소 : 자갈이 깔리고 유속이 완만한 곳

번식 기 : 5~6월

크 기 : 15cm 내외

지난 호에 연재한 꾸구리와 종종 이름으로 혼동을 주는 물고기인 얼룩동사리를 이번 호에 소개한다.

얼룩동사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고 있는 한국특산종이다. 국내에서도 그 자생 분포지가 그다지 넓지 않은 어종으로 주로 금강 이북의 하천에 살고 있으며 서울, 양평, 인제, 청평, 홍천, 여주 등 한강 수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주로 하천의 중하류 지역, 유속이 완만한 여울의 자갈과 모래가 많이 깔린 곳에서 일정한 세력권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몸은 배 쪽으로 둥글납작하고 전체적으로는 타원통형이다. 체색은 서식지나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머리와 등, 몸체는 흑갈색이며 배는 황갈색을 띠고 있다. 특수부대 군복처럼 짙은 얼룩무늬가 몸 전체에 깔

려 있다.

얼룩동사리는 대단한 육식성 어종이다. 수서곤충, 새우, 물고기 등 살아서 움직이는 작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주로 야행성인 이 물고기는 낮에는 돌틈에서 휴식을 취한 후 밤이 되면 어슬렁거리며 먹이 사냥을 한다. 그러나 야간 먹이 사냥이 시원치 않으면 낮 시간도 개의치 않고 활동을 한다. 이때의 행동은 마치 적진에 침투한 계립라를 방불케 한다. 모른 척 음흉하게 조심조심 먹이에 다가서서는 완벽한 사냥 기회를 엿보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쏜살 같이 달려들어 한 입에 덤석 머리부터 삼킨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저격수처럼 실패란 거의 없다. 작은 파라미 한 마리를 사냥하는데도 바위 자갈 수초 등 주위의 은폐, 엄폐물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신중성을 가지고 있다. 얼룩동사리의 배 속에서 왕잠자리의 암컷과 수컷이 한꺼번에 발견된 적도 있다. 사람들도 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비행하는 이들을 어떻게 물속에서 느릿느릿 헤엄치는 물고기가 잡아먹을 수 있나? 말이 아니 된다고 일축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시골에서 오래 지내본 사람들은 안다. 왕잠자리도 교미 때에는 암·수가 물이 닿는 수초 줄기에 앉아서 긴 사랑행위를 나눔을, 얼룩동사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단숨에 공격을 하여 간만에 물 밖 곤충의 단백질을 보충한 것이다.

오래 전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이 물고기가 물뱀과 싸우다 둘 다 죽는 엄기적인 장면이 나온 적이 있다. 얼룩동사리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작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입 안쪽으로 15~45도 경시지어 둑아나 있다. 그래서 한번 물린 것은 좀처럼 빼져 나오지 못한다. 설령 이 물고기가 원하지 않는 상대가 입속에 들어가 박히더라도 이빨구조의 특성상 잘 놓아줄 수가 없게 된다. 장점이 때로는 자신을 죽이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번식기는 주로 5~6월경으로 수컷이 돌 밑에 산란장을 만들어 암컷을 초대하여 산란하게 한 뒤 신부는 멀리 쫓아버리고 혼자서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알을 지켜준다. 이 때 꾸구꾸구 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꾸구리라는 재미나고 설득력 있는 별칭 사투리로 널리 불리고 있다.

하천의 오염과 환경 변화에도 강한 적응력을 지닌 물속의 폭군 얼룩동사리도 매운탕을 먹고자 설치는 인간들 앞에서

는 속수무책이다. 생긴 것이 우락부락하여 관상어로 환영을 못 받지만 외모와는 달리 담백하고 얼큰한 맛이 있는 물고기로 알려져 포획되면 놓아주는 경우가 별로 없이 그냥 매운탕감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사촌격인 동사리와 함께 자신들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렵의 낙을 제공해 주고 있다.

통상 10~15 센티의 개체가 주종을 이루나 때때로 25 센티에 가까운 큰 것들도 발견되고 있다. 얼룩동사리와 그 모양이 너무나 닮아 일반인들이 두 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종으로 동사리가 있다. 그러나 동사리는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수질이 맑은 하천의 중·상류 이상에 주로 서식한다. 생태는 거의 같으나 외관상 동사리는 몸옆의 첫째 가로 무늬가 제1등 지느러미와 제2등지느러미 사이에 있고 얼룩동사리는 그것이 제1등지느러미 밑에서 시작되며 동사리와 달리 이 띠가 끊어져 있어 구별이 가능하다. ●



얼룩동사리 : 야행성인 얼룩동사리가 밤에 이빨을 사용할 준비를 하며 이를 악물고 있다.



알 파수꾼 : 돌 밑에 총총으로 붙은 알을 보호하며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수컷. 아비가 되는 길은 매우 고되다.



포식종 : 수심이 얕은 민물 수계에서는 가장 포악스러운 친구로 마약 피라미 한 녀석을 김거하여 처넣고 있다.



깡에 산다 : 필자의 손을 깨물고 질 안 놓아주는 이처럼 강 좋은 얼룩동사리 녀석을 하천에서 가끔씩 조우하기도 한다.